

광주일보 10기 리더스아카데미-그림이 오감을 만났을 때 '감각주의'

# “그림에서 음악이? 오감 깨워주는 게 예술이죠”

정우철 도슨트·민시후 작곡가·노인호 조향사, 르누아르 작품에 어울리는 향기·피아노 곡 선보여

“왜 사람들은 그림을 볼까, 왜 향을 맡고 음악을 들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네 일상엔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느낄 수 있는 감각은 한정적이죠, 이들에게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향도 있다고 오감을 깨워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에서 향기가 난다면, 그림에 피아노 소리가 담긴다면 어떨까.

누구나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보고 가만 서있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 속 꽃을 보며, 그림 속 여인을 바라보며 꽃향기와 함께 여인의 통통 튀는 발걸음 소리를 상상해본 적, 분명 있을 것이다.

이 모든게 눈 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울리는 향기와 음악을 들려주는 이색적인 강연이 지난 11일 제 10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펼쳐졌다.

이날 강사로는 정우철 도슨트와 민시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노인호 조향사가 함께했다. 그림에 이야기를 더하고 음악을 듣고, 향기를 입히는 이들의 조합은 원우들의 오감을 깨어내기에 충분했다.

강연은 정우철 도슨트의 해설을 통해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에 어울리는 향과 음악을 함께 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대 전 원우들에게 배부된 4장의 시향지에는 작품 마다의 향이 배어있었다.

이날 설명과 함께 향과 음악이 더해질 주인공은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1841-1919), 일상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잘 알려진 르누아르는 인상파 화가로서 평생동안 60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

정 도슨트는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도 할지라도 화가의 삶까지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삶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강연의 막을 열었다.

평생을 행복만 그림만 그렸기에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르누아르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13살부터 돈을 벌기 위해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다. 도자기 공장에서 도제로 일했던 13살의 르누아르는 조금씩 미술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혼자서 배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사를 글레르라는 스승을 찾아갔다. 하지만 점차 ‘행식적으로 그려야 하는’ 고전주의 화풍에 싫증이 났고 이후 오늘날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아들과 ‘있는 그대로 그리는’ 미술을



지난 11일 열린 제10기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에서 정우철 도슨트와 민시후 작곡가, 노인호 조향사가 프랑스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 작품에 설명과 함께 음악에 연결된 향기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왼쪽부터 노인호 조향사, 정우철 도슨트, 민시후 작곡가.

시작하게 된다.

르누아르의 작품 ‘산책’은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생동감 넘치는 남자의 표정, 햇빛에 반사된 드레스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노 조향사는 봉투에서 ‘산책’ 그림이 그려진 시향

지를 꺼내며 “말자마자 산책 나가고 싶게 만드는 향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시향지’는 소나무 향기로 시작해 아이리스향으로 은은하게 퍼트린 다음 샌달우드 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합했다. 뒤이어 민시후 작곡가의 ‘The Science of Sleep’ 피아노 연주로 그림의 대미를 장식했다. 같은 방식으로 ‘시골에서의 춤’과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르누아르를 위하여’ 등 4개 작품이 소개됐다.

르누아르는 행복을 그렸던 화가지만, 그의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 못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인상파라는 핏방받고 무시받던 화풍을 추구했으며 르누아르의 작품을 몰래

사들이며 배려해줬던 애뜻한 친구를 전쟁에서 잃었다. 말년에는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렸고 아내는 당뇨를 앓았다. 이후 두 아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들을 간호하던 아내는 당뇨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몰아쳐오는 불행에 르누아르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림에는 여전히 행복으로 가득했다. 근육이 말라가고 오른쪽 팔이 꺾여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지만 손에 붓을 묶으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침대에 누워 죽음을 앞둔 르누아르는 아들에게 “꽃과 캔버스, 물감을 갖다 달라” 말하며 꽃다발 그림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정 도슨트는 “평생 행복만을 그려온 화가 르누아르, 르누아르의 그림이 행복한 것은 그가 행복해서가 아닌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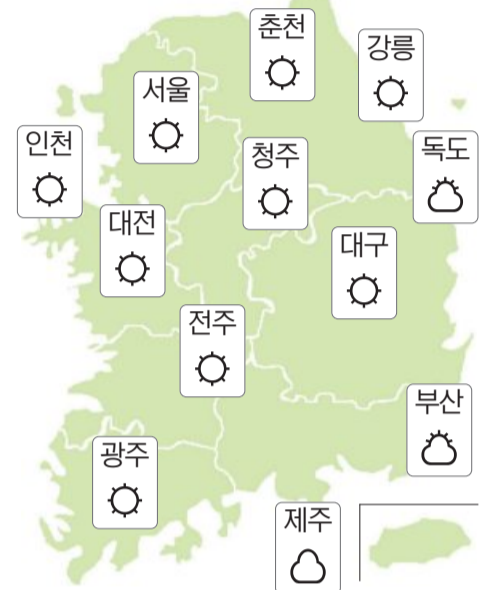
해돋이	06:36	달뜨기	20:00
해질	18:01	달짐	09:49

### 일교차 커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광주	맑음	11/24	보성	맑음	11/23
목포	맑음	13/22	순천	맑음	12/24
여수	맑음	16/22	영광	맑음	9/23
나주	맑음	9/24	진도	맑음	12/22
완도	맑음	14/24	전주	맑음	10/23
구례	맑음	8/24	군산	맑음	10/22
강진	맑음	11/24	남원	맑음	8/23
해남	맑음	10/24	흑산도	맑음	15/20
장성	맑음	9/24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1.0~2.0	1.0~2.0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9	04:00
		21:37	16:36
여수		04:28	10:58
		16:52	22:53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낮음	보통

### ◇ 주간 날씨

14(금)	15(토)	16(일)
12/24	14/25	14/24
17(월)	18(화)	19(수)
12/17	6/17	7/19

## 화순전남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바로알기 캠페인



화순전남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14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의 종합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건협 영양사,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 식약처장상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민원) 소속 영양사 김하나 팀장, 최수영 대리, 김희지 사원 등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스포츠360플레이에서 개최된 ‘건강’ 생활 실천 영양지수(NQ) 체험 프로그램 성과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우수상(김하나)과 장려상(최수영·김희지)을 수상했다. <건협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 ▲임길락(전 조선대병원 총무부장)·소경란씨 아들 동산군, 유지연씨 딸 서수민양=15일 오전 11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5층 엘린홀
- ▲서팔만·김미옥씨 아들 재영군, 나금식(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김명희씨 딸 혜윤양=15일 오후 12시 40분 광주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홀
- ▲정광익(목포재활요양병원장)·오소저씨 아들 희철군, 성기훈·이순애씨 딸 예지양=15일 광주 하우스 오브 드레드 3층 아펠린홀
- ▲차명수(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박인숙씨 딸 희원양=29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그레이스홀

###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

- 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자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아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9시 사랑마포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 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

- 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 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물레타지독서(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부음

- ▲최정희씨 별세, 임후성(북콤마 출판사 대표)·대관·지혜씨 모친상, 윤정기씨 빙모상=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국립장례문화원